

종합

광주시, 음식물 자원화 시설비 몰래 증액

시의회 “당초 500억→700억 증액 이유 뭐냐”

담당 국장도 몰라... 배경 의혹 싸고 논란 커져

광주시가 추진 중인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비가 담당 국장도 모르는 사이에 5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대폭 증액돼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조광항 의원(민주·비례대표)은 13일 광주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당초 사업비가 500억원에서 7개월만에 700억원으로 40%나 증액됐다”며 증액 사유를 따졌다.

광주시는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서구 치평동 제1하수처리장 내에 하루 300t 규모의 '건식사료화+음폐수바이오가스화' 공법을 도입한 공공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시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 지침을 근거로 총 사업비를 500억원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지침에 건식사료화시설 1당 7천만원,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1당 6천만원이 제시됐고, 시가 추진하는 시설은 300t 규모여

서 390억원이 나왔다. 여기에 지하화를 감안, 500억원을 책정했다.

시는 이 기준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는 올해 초 시의회 업무보고에서도 500억원으로 보고했고, 지난 7월16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 공고에서도 총 공사비 추정금액을 500억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열린 1차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서 갑자기 사업비가 700억원으로 뺨뺨 튀었다. 담당 부서의 국장마저도 이날 보고회에서 증액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현주 환경녹지국장은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저도 그 자리(1차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 참석해서야 그 내용

을 알고,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검토 지시를 했다”며 “지하화하고 완벽한 시설로 기본계획을 내다보니 비용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비 감소 때에는 역방향의 참여 한계로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실제 사업비는 경쟁입찰을 통해 통상적으로 15% 낮아져 500억원대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당초 사업비 500억원에도 지하화는 포함돼 있으며 완벽한 시설로 공사를 한다지만 200억원이 증액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엉터리였는지, 사업비가 뺨뺨 튀었는지 둘 중 하나다”라고 질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시설

‘대풍에도 눈물짓는 농심’ 근본대책 내놔야

올해 쌀 생산량이 491만6천으로 지난해(484만3천)보다 7만3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예상 수확량(468만2천)을 23만4천(5%) 웃도는 양이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풍년이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당연히 기뻐해야 할 대풍작에도 농민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쌀 생산이 늘어난 반면 수요는 줄면서 쌀 값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들이 전남도청 앞 광장 등에 버 3만여 가마를 쌓아놓는 대규모 야적시위를 벌이고 있을 만큼 농촌 사정은 절박하다.

이제는 쌀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쌀값 하락은 만성적인 공급 초과가 야기한 구조적 문제다. 단순히 정부 매입량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대북지원을 재개하고 다작적인 쌀 소비 확대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현물 쌀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부 대형마트의 저가 쌀 판매 행위를 막아야 한다.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쌀벼 경영안정대책비 상향 조정과 벼 직불제 전면 시행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의 야적시위 확산에도 정부 대책은 미흡하기 그지 없다. 농민수산식품부는 비축용 37만 외에 34만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나 농민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농민들의 야적시위 확산에도 정부 대책은 미흡하기 그지 없다. 농민수산식품부는 비축용 37만 외에 34만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나 농민들의 기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빛예술, 지역 ‘藝·産협동’ 계기 되기를

지역 작가들이 광주 LED(발광다이오드) 기업들의 지원을 받아 ‘광아트(빛예술) 장르에 대한 개척에 나섰다’고 한다. 최근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한국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빛예술연구회’를 창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다. 이들 작가들은 앞으로 조각품 안에 LED 조명을 넣거나 빛 자체를 소재로 한 설치 작품을 만드는 등 빛예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한마디로 LED를 활용한 조각, 설치작품 등 예술품을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빛예술연구회를 주목하는 것은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도전정신을 높이 살뿐만 아니라 LED 관련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광주의 대표산업이라 할 수 있는 ‘광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등에 산(藝·産) 협동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빛예술연구

회는 광주지역 LED 관련업체들과 ‘광아트를 활용한 기술 공동개발사업’협약을 맺고 기술 제공 및 상품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산업은 ‘디자인 시대’라고 한다. 디자인 부문의 경쟁력이 없으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LED 관련기업은 전문 디자인팀을 꾸릴만한 여력이 없을 정도로 영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빛예술연구회의 창립은 차별화된 디자인의 LED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지역의 작가들은 기업의 지원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작가와 기업이 ‘윈윈’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빛예술연구회의 창립으로 광주가 명실상부한 ‘빛의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日本人의 DJ 추모

도쿄서 400명 참석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들의 추모행사가 13일 저녁 부인 이희호 여사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한일 양국의 정·관계, 학계, 종교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 아사히신문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고인의 일본 지인 등 200여명의 인사가 구성된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는 모임’이 주관한 것으로, 고인의 추모영상 상영과 추도사, 성경 낭독과 기도, 헌화 순으로 3시간동안 진행됐다.

일본측에서는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의장과 센고쿠 요시토 행정체신상이 인사말을 하고, 와다 하루키 동경대 교수, 이토 나리히코 주오대 교수가 추모사를 했다.

이 여사는 인사말에서 “남편의 유지를 받는데 생애를 바치고자 한다”며 “과거 남편에게 극진한 성원을 보내주셨던 일본에 계신 여러분들과의 협력과 우정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잘 받들어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장의 보고에서 민주당 박지원의원은 “(청와대에) 나의 국장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10% 상승할 것이라고 했다”며 “물론 대통령 지지도는 10% 상승했다고는 민주당에 해당행위를 한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조문단 파견이 이뤄진 데 대해 “청와대에 통보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해 성공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나는 정부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민족통일문제제전 시상식. 한민족통일광주광역시협의회가 주최한 '제 40회 한민족통일문제제전작품 시상식'이 13일 광주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호남 광역권 녹색산업 거점으로

조선·車부품 집중 육성

호남권이 조선·자동차부품 등 친환경 녹색산업의 거점으로 구축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4회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날' 기념식을 열고, 산업단지 광역 클러스터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성과가 미미한 클러스터 사업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맞춰 개편, 실질적인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현재 12개에 불과한 광역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모두 150개로 확대되고, 대상기업도 2만3천여 개에서 4만2천여 개로 늘어

나들.

지역별로 호남권은 조선·자동차부품·광산업 등 친환경 녹색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경우 지식기반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고, 충청권은 전기전자 중심의 대한민국 IT(정보기술) 허브로 구축한다. 대구·경북권은 전기전자, 기계 중심의 동북아 IT 융복합산업 거점으로 추진한다.

또 동남권은 한태평양 시대 기간산업 거점으로, 강원권은 의료기기 등 동부가 의료산업 중심지로 추진한다. 제주권에는 친환경 바이오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연합뉴스

주중 대사 류우익씨 내정

주러시아 대사 이윤호씨

정부는 주중 대사에 류우익(59) 전 대통령 실장, 주러시아 대사에 이윤호(61)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류 주중 대사 내정자는 경북 삼주 출신으로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후 독일 키일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 서울대에서 국토문제연구소장과 교무처장을 지낸 뒤 이명박 정부 들어 초대 대통령 실장을 지냈다.

이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는 대전 출생으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행정 13회에 합격, 경제기획원에서 4년간 근무했으며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LG 경제연구원장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을 거쳐 현 정부 들어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냈다. /*연합뉴스

오바마 “북핵 포괄적 해결, 韓美 의견일치”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확산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해결(comprehensive resolution)’을 이뤄내야 할 필요성에 ‘완전한 의견일치(in full agreement)’를 보고 있으며, (한·미) 두 정부간의 협력이 대단히 긴밀하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서면 인터뷰 답변을 통해 “이 대통령과 나는 매우 돈독한 실무관계를 쌓아왔으며, 이는 글로벌 이슈,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긴밀한 공조에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8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며 “이 이슈는 이 대통령과 내가 심도 있게 논의해온 것으로, 우리는 서울에서 이 문제를 비롯해 다른 주제에 관해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안 북한 핵 해법인 ‘그랜드 바겐’(일괄 타결)을 둘러싸고 최근 불거졌던 한·미간 이견 논란을 일축하고, 양국이 튼튼하고 일치된 대북 공조의 토대 위에 있음을 직접 강조하는 것이다.

또 조만간 개최될 북·미 대화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비핵화 협상의 신속한 재개로 이어질 수 있다면 6자회담의 일환으로 (북·미)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美 보즈워스 특별대표

내달 중순께 방북 유력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시기를 잠정적으로 12월 중순께로 정하고 북미간에 구체적인 시기와 관련한 물밑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즈워스 대표의 11월 중 방북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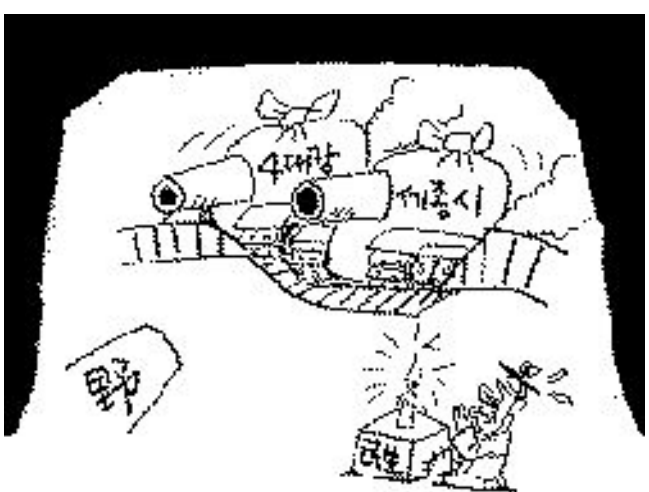
미 정부 소식통은 12일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12월 중순에 이뤄지는 쪽으로 갈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추수감사절 이전 방북은 어렵다”면서 “이번달 말까지는 이뤄질 것 같지 않다. 아마도 12월은 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추수감사절 이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사이가 될 것”이라면서 “연내에는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12월 중순에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14일부터 시작되는 세계주마, 이에 앞서 1월 7일부터의 둘째주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風前燈火가 따로 없다

캐리어, 결국 파국 치닫나

사측, 정리 해고자 개별 통보... 노조, 공장 점거 등 맞서

캐리어가 파국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노사간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은 13일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강행했고 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장 점거 등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13일 캐리어노 사에 따르면 사측은 이날 오전 9시경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예고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로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사측은 광주공장 존립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280명 정리해고 방침을 밝히고 전일까지 명예퇴직 희망자를 신청받았으나 최종적으로 130여명만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이날 오후 3시, 5시, 7시 세 차례에 걸쳐 태복해고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회사 결정을 통보할 방침이다.

노조는 “지난 2006년 폼프래서 공장을 폐쇄하면서 373명을 구조조정해 1천400여명에 이르던 직원이 현재 740여명으로 줄었는데 3년도 되지 않아 반복되는 구조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해고 통보를 받은 노조원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공장점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다 자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